

혁신기관 취창업 활성화방안 모색

전북대, 재학생 취창업 O2O 페스타 온라인 개최 멘토링·기업 특강·방구석 콘서트 등 행사 다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0일 제2회 바이오농축산식품융합포럼취창업 O2O(Offline To Online)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LINC+사업단과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전북혁신기관이 후원한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업특강과 멘토링, 취·창업 경진 발표,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 클래식팀, 래퍼 등의 다양한 공연을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과 기업 학생, 공연이 융합된 취창업 O2O형 행사는 국내 처음이다.

페스타 1부는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특강 및 멘토링이 진행됐다. 특강은 내츰(초이스) 서성원 대표가 '사회 트렌드와 나의 취창업 맞춤형 진단', 액션하우스 박상우 대표가 '농업의 새로운 발견 창업 사례'를 다룬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준 대표가 '버크서-K, 글로벌 축산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

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강 이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소개와 농생명 기업에 대한 소개 및 기업-학생 간 취창업 멘토링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출신 학생들의 취·창업 경진발표가 이뤄졌다.

영농창업 학생팀을 비롯해 팜디자인(비대면 한우 경매 시스템), 온리랜드(푸드테크), 스마트팜 디자인(곤충, 인삼재배), 로마리서치(농촌(현장)해결형) 총 8팀이 참여해 창업 스토리를 소개하고, 농생명 분야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해 '제1회 바이오농생명 기업 초청 취창업 페스타'에

이어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 및 산업화를 통해 교내 학생의 취창업을 확산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농생명 R&D연구전북농생명분야 기업-지역거점대학 학생을 연계하는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형 뉴딜체계를 추진한 계획이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학생들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우리 대학 여러 분야 사업단이 외부 기업과 기관이 함께 모여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속적으로 학생과 기업을 위해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원

옛 이리남중 자리... 외국어 교육 중추적 역할 기대

익산외국어교육센터(원장 소경아)가 지난 11일 기관 승인 절차를 마치고 옛 이리남중 자리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지상 3층 건물에 북카페, 블루존 지구촌여행관 요리체험실, 과학&미술실, Flexible Learning Space, XR 등의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한 원어민보조교사(8명)와 한국인 과외교사(8명)의 교육전문가들이 익산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 자유학년제과정, 방과후과정, 방학캠프과정 등의 기본교육과정과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제공

해 학생들의 다양한 외국어 실력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특별과정으로는 특성화고 대상의 취업 지원 독일어 과정, 진로·진학과정, 시민강좌 및 세계문화축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격적 운영에 앞서 11월을 진행한 익산시 관내 5개 초등학교 114명 대상으로 진행된 초·중·고·외국어과정 시범 운영 결과 참여 학생의 95%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원식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한편 교육신청은 학교 단위 신청 또는 센터 홈페이지(<http://ift.kr>)를 통해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2020 여성정책네트워크 간담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11일 센터에서 2020 여성정책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매년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의 참여로 도내 여성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간담회는 이운애 센터장의 진행으로 홍성임 도의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수인 소장,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부회장, 벤처기업협회 유기달 이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박선민 과장,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성숙 이사, 전주시간강지원센터 정유진 센터장, 전북YWCA협의회 이정선 회장 등 총 10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코로나19 대응의 어려움 속에서 각 단체에서 그간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친화제도 실제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극복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개인별 투명 아르바이트를 설치하는 등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가족친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과 공모사업, 가족친화 확산 협의회·전북지역 일·생활 균형 지역주민 등 협의체에 적극 동참하여 가족친화 경영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운애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폭넓게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의 일·가정·생활 균형과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8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한 군산부설초 박지현 학생이 동상을, 삼례중앙초 이슬 학생과 완산중 최미리 학생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전북 3명 수상

군산부설초 박지현 · 삼례중앙초 이슬 · 완산중 최미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8회 전국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참가한 군산부설초 박지현 학생이 동상을, 삼례중앙초 이슬 학생과 완산중 최미리 학생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키워주

고자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북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됐으며, 초등부는 자유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어로 발표 후 동일 내용을 부모 모국어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초등 부문 동상을 차지한 박지현(중국어) 학생은 '동물 웹툰 작가가 돼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동물들의 습성이나 특징들을 잘 그려내어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이슬(베트남어) 학생은 다국어능력을 활용해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중등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최미리(중국어) 학생은 '산생남이 되고 싶은 장래희망을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송지환 교수, 체육교육 '최우수 학술상'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체육교육학과)가 최근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우수 학술상'은 국제 체육교육학의 초석을 다진 올해의 연구자를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송지환 교수는 최근 SCI급 국제 저널에 발표한 미래 스포츠교육 환경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와 '스포츠 사회화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등의 연구논문 및 다수의 국내 연구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의 '최우수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송지환 교수는 대한민국 체육 5개년 계획 정책위원과 학교체육진흥위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특임강사 및 중앙 인재개발심사위원, 한국 체육교육학회 학술위원장 및 스포츠 교육학회 정책 위원을 맡고 있다.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체육교육학과)가 최근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송지환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학교 체육교육 발전과 지역 스포츠 교육환경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기업인 구원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이들 기업의 상품을 구매·전달하는 방식이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전남대 LINC+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예비 사

회적기업이자 가족회사인 '천연담야', 천연주미로 세트를 구매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함께 이겨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단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